

4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 부총리 모두발언(3.25일)

[도입]

- 제4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.
- 美 新정부의 동맹도 예외없는 관세부과와 중국의 핵심광물에 대한 수출통제 강화 등 상대국의 맞대응이 이어지면서 글로벌 공급망 불안이 심화되는 양상입니다.
 - 설상가상으로 전통산업과 첨단산업을 가리지 않는 중국기업들의 전방위적 공세, 소위 “제2차 차이나 쇼크*”로 우리 공급망 핵심 기업들은 말 그대로 생존을 위해 분투하고 있습니다.
 - * 중국이 저부가 제품에 이어 고부가제품까지 생산·수출을 크게 늘리면서 글로벌 경제가 받는 충격(WSJ)
- 정부는 “탄탄하고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이 기업이 필요로 하는 가장 강력한 경제정책”이란 각오로 대외여건 변화와 공급망 교란에 맞서겠습니다.
 - 이를 위해 작년말 수립한 「제1차 공급망안정화 기본계획」에 포함된 과제들을 기업이 체감할 수 있도록 구체화하고 속도감 있게 이행해 나가겠습니다.

[안건 1: 차량용 요소 수급 안정화 방안]

- 먼저 지난 '21년과 '23년 두 차례 수급불안이 발생했던 차량용 요소의 근본적 수급 안정화 방안을 논의합니다.
 - 그동안 KDI,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등 전문기관의 연구용역과 관계기관을 망라하는 TF를 통해 국내생산, 비축, 수입다변화 등 대안간 수급안정화 효과, 소요비용, 정책 유연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.

- 그 결과 “비축확대와 수입다변화”의 정책조합을 통해 어떠한 대외교란 요인에도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을 수 있는 안정적인 수급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.
- 현행 50일 수준의 공공비축(타소비축)을 70일 수준으로 확대하고, 해외 수입처를 기존의 베트남, 중국, 일본에서 중동, 유럽까지 다변화하겠습니다.
- 이를 차질없이 이행하기 위한 관련 예산을 '26년도 예산안에 반영하겠습니다.

[안건 2: 핵심광물 재자원화 활성화 추진방향]

- 다음으로 핵심광물의 재자원화 활성화를 위한 정책 추진방향을 논의합니다.
- 핵심광물은 전기차·이차전지·청정에너지 등 미래산업의 필수요소로, 이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은 주요국들의 경제안보 핵심 어젠다입니다.
- 특히, 핵심광물을 전적으로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로서는 사용후 제품으로부터 핵심광물을 추출하는 재자원화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.
- 이에 정부는 '30년 핵심광물 재자원화율 20% 달성을 목표로 재자원화 산업을 위한 클러스터를 구축하고, 선도기업을 육성하는 등 관련 산업기반을 탄탄하게 구축해 나가겠습니다.
- 무엇보다 그간 “폐기물”로 인식해 온 재자원화 원료들을 소중한 “자원”으로 보는 인식과 제도의 전환이 절실합니다.
- 사실 온 국민의 일상이 IT 기기와 전자제품으로 유지되다 보니, 나라 전체가 “핵심광물 추출이 가능한 도시광산(urban mining)”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.

- 환경을 보호하면서 핵심광물을 원활히 확보하는 '자원순환 생태계'를 구축하기 위해 기재부·산업부·환경부를 중심으로 TF를 꾸려, 관련 제도와 규제 개편방안을 금년 중 마련하겠습니다.

[안건 3: 공급망안정화기금 운용 및 제도개선 방안]

- 마지막으로 금년도 10조원 규모 공급망기금의 지원 대상과 수단을 다각화해 공급망 핵심 기업에 대한 지원의 실효성을 높여 가겠습니다.
- 먼저, 소재와 부품을 국내에서 조달하는 제조기업에 대해 조달원가 수준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파격적인 저리 대출 프로그램*을 즉시 도입하겠습니다.
 - * 경제안보품목을 국내 생산기업으로부터 조달하는 경우 공급망 기금의 자금 조달원가 수준으로 금융지원 (25년 1조원 지원 목표)
- 또한, 수은이 공급망기금에 출연할 수 있도록 공급망안정화법을 개정하여 이차보전을 통한 금리인하와 직·간접투자 확대를 추진하겠습니다.
- 이와 더불어 금년에는 해운물류 등 경제안보서비스 분야로 공급망기금의 지원대상을 확대하고, 핵심광물에 대한 국·내외 투자도 본격화 하겠습니다.
- 이어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말씀이 있겠습니다.
- 지금부터는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.